

## 전기차에 올인(all-in)한 빈패스트의 미래

### KATECH Insight

- ◆ 베트남 빈패스트(Vinfast)는 완성차 제조업에 진입한지 5년 만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북미,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
- ◆ IRA 등으로 인한 글로벌 사업 환경 변화나 빈그룹의 재무 상태가 빈패스트의 리스크 요인이나, 탈중국 기조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 가능성, 정부·국민의 지지라는 긍정적 요인도 존재

### ■ 베트남 최대 민영 기업인 빈그룹 산하 빈패스트(Vinfast)는 자동차 제조업에 진입한지 5년 만에 모든 내연기관 모델을 단종하고 전기차 부문에만 집중한다는 계획

- '17년 빈그룹은 빈패스트\*를 설립하여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베트남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

\*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(Vin Group) 주도로 '17.6월에 설립된 완성차 및 모터사이클 생산 기업으로 '18년 파리 모터쇼에서 신차를 발표하고 '19년부터 차량 생산 개시 (산업동향 Vol. 12 참고)

- 애국주의에 기반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베트남 정부의 자국 생산 완성차 우대 정책에 힘입어\* 단기간에 판매량을 증대하며 베트남을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으로 자리매김



\* '21.12월부터 '22.5월까지 베트남 정부는 국내 생산·조립 자동차에 대해 최초 등록세의 50%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에 빈패스트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

- 그러나 빈패스트는 자동차 사업을 전개한지 만 5년째인 '22년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, 전기차만으로 '28년까지 100만대 이상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

- 과거 BMW 등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2년 만에 신차를 출시하는 저력을 보인 빈패스트는 최근 모든 생산 라인을 전기차로 100%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며 라인업을 빠르게 공개

- 또한 배터리팩 공장 설립,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충 중

### ▣ 빈패스트의 배터리 전기차(BEV) 모델 ▣

모델명	VF8	VF9
가격	\$40,700 ~ 48,000	\$55,500 ~ 61,000
배터리	82 ~ 87.7kWh	92 ~ 123kWh
주행거리	397 ~ 467km(WLTP)	419 ~ 590km(WLTP)
사진		

\* 출처: Vinfast 홈페이지 및 insideevs.com

■ 수요가 제한된 내수 시장보다 북미·유럽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

\* 지난 5년간 베트남 내수 신차 판매량은 연간 30만대 내외이며 '22년에는 약 5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1억 명에 달하는 인구 대비 완성차 시장 규모는 여전히 작은 편

● 내수→해외시장을 순차적으로 공략하는 여타 기업과 달리 유럽, 미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도전

- (미국) '22.7월 캘리포니아주에 6개의 쇼룸\*을 오픈하여 고객들에게 전기차 모델 홍보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향후 미국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

\*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, 샌디에고, 버클리, 커머스 등 6개 지역

- (유럽) '22.6월 오슬로에서 열린 35회 EV 국제학술대회에서 독일에 25개, 프랑스 20개, 네덜란드 5개를 포함하여 유럽 전 지역으로 50개 이상 매장을 확대 오픈할 계획 발표

■ 빈패스트의 미국, 유럽 사업 전개 현황 ■



\* 출처: Vinfast 홈페이지

■ IRA(인플레이션 완화법)로 인한 미국 시장 공략 지연 및 재무 상태 등이 리스크 요인

● 빈패스트는 40억불을 투자하여 '24년 상반기까지 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전기차·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IRA 발효로 인해 전기차 보조금 수혜\*에 제약 발생

\* IRA로 인해 대미 수출 전기차는 대당 7,500달러 연방 세금 공제 혜택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

● '21년 빈그룹은 130.8조동(약 6.5조원)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사업 관련 신규 투자로 인해 △7.5조동(약 △3,743억원)의 세후 손실이 발생하여 재무 리스크가 증가

\* 빈그룹은 전기차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내연기관차 외에도 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스마트폰과 TV 생산을 중단하며 제조 부문에서만 △23.9조동(약 △1.2조원)의 세전 손실이 발생

● 현재 준비 중인 미국 내 기업공개(IPO), 판매·정비 인프라 구축, 브랜드 인지도 개선 등도 과제

■ 반면 탈중국 기조에 따른 ASEAN의 부상, 정부·국민의 지지라는 긍정적 요인도 존재

● 전기차 관련 공급망의 탈중국 기조가 확산되며 ASEAN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, 그 중에서도 제조업 기반이 우수한 베트남 빈패스트의 수혜 가능성이 존재

● 과거 정부-기업의 긴밀한 협력으로 자동차 산업 육성에 성공한 아시아권의 사례를 고려할 때 정부와 국민의 지지라는 무형의 성장 동력도 빈패스트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